



인생이란 대하 드라마의 제작 현장에서

송경화/EBS라디오 제작국 교양팀 차장

필 자는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다. 그동안 제작 경험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과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하여 느꼈던 내용을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하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들 필자는 직업상 얌으나 서나 심지어 꿈 속에서조차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꺼리에 늘 관심을 갖는다. 재미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슬픈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가슴아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프로그램의 소재가 된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최고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만이 꼭 필요하거나 귀한 것은 아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늘 재미있는 일만 있다면 산다는게 금방 싫증 날 것이고 슬픈 일만 있다면 절망 속에서 삶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날이 그날이라면 얼마나 심심하고 무료할까?

나와 주변사람들이 겪는 많은 일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내 인생은 풍요롭고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또한 재미있을 수 있는 것이다.

둘. 삶을 함께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도 필요하지만 내용을 구체화시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총 지휘하는 것은 PD지만 작가, 리포터, 엔지니어, 출연자가 모두 하나되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함께 모여 고민도 하고, 한편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나면 서로의 어깨를 두들겨주는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동료들이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나 나로 하여금 먹고, 입을 수 있게 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들, 특히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가족은 내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셋. 삶에 NG는 있을 수 없어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모두 생방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스튜디오에 들어가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방송 시작을 알리는 “큐”사인이 나가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NG”란 있을 수 없으며 “다시”란 있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를 성숙하게 해준 것은 바로 그 시행착오였으며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 나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그 한계를 통하여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란 존재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일뿐.

넷. 방송 그리고 인생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내용도 다양하고 포맷도 다양하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하드라마가 아닐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도 않을뿐 아니라, 많은 이야기와 사람이 등장하고 일생 또는 몇 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대하드라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동시에 그 드라마를 연출하는 최고 책임자다.

그 대하 드라마를 재미있을뿐 아니라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작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는 스튜디오에 선다.